

가톨릭의 醫師 像



孟(이시도로) 光鎬

<가톨릭 醫大·豫防醫學專講>

◇ 「류우끼찌」적 인술(仁術)

진실과 대했을때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큰 감동을 느끼게되며 또 무엇인지 모르게 자기의 삶이 충실히 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열구(熱求)하는 것은 자기 생명의 충실이며 삶의 보람있는 발전과 행상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우리가 이렇듯한 진실에 접하는 것은 진실한 인간 그 자체일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런 인간을 그린 예술작품 예컨대 하나의 글속에서 느끼게 되는 일이 많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그의 자서전이랄 수 있는 「나가이·다카시(永井隆)」의 소설 <영원한 것을>을 읽고난 가슴뿌듯한 진실에의 감동을 쉽게 잊어 버릴 수가 없다.

소설속의 주인공 「류우끼찌」는 우수한 성적으로 의과대학을 나와 앞으로 유명한 내과의(內科醫)가 될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날 몹시 술에 취해 비를 흠뻑 맞은게 유인이 되어 양쪽귀가 멀게되는 심한 중이염을 앓고 난다.

여기서 그는 그의 꿈이 산산히 부서짐을 느끼고 『인간이 세운 야심이나 계획, 명예욕이 의외의 재난으로 허무하게 부서져 버린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이 좀더 <영원한 것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대오(大悟)를 터득하고 이때부터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된다.

이후 청력이 별로 장애되지 않는 방사선과를 택하여 대학에서 교편을 잡는동안 성의와 피나

는 노력으로 일관한 인술에의 투신으로 그는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가 되지만 오랜세월 무방비로 방사선을 쬐인것이 원인이 되어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나가사끼」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던날 처와 아이를 잃어버린다 그는 『전쟁을 그만두자 영원히 전쟁을 그만 두자』고 부르짖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속의 얘기이긴 하지만 작자 「나가이」가 그 스스로 겪은 생활을 「픽션」화한 것이고 그가 백혈병으로 죽기 3년전인 1948년 발표한 이 소설이 술한 사람에게 커다란 감동을 일으킨것은 비단 의사로서 무조건적 사랑을 환자들에게 베푼 인술에서이기 보다는 그의 순교자적 가톨릭 정신이 일생을 통한 생활로 승화(昇華)했던데에 대한 인간적 감동이 크게 작용한 때문이고 이런 이유로 그의 여러권의 책이 교회서적으로 많은 교인들의 필독서(須讀書)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런 지고(至高)한 사랑은 그의 수필 <의향>속에서 너무도 절실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그가 만성적인 백혈병으로 고생하다가 설상가상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뒤 고열과 피부에 심한 반점(斑點)으로 몸져 누워있던 어느날 10리나 떨어진 시골로 왕진 부탁을 받는다. 자신이 거의 중태에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을 견네듣고 그것이 단순한 유태(회충으로 인한 복통)임을 알려 주지만 막무가내로 왕진을 청하자 그는 화를 내며 따라 나선다.

이 왕진으로 그 자신은 죽을지도 모르지만 자기말을 믿지 않는 환자가족에게 자기의 <명예>

와 대학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중 수녀원에 잠시 쉬어가는 동안 원장수녀로부터 『같은 환자를 진찰하더라도 그런 <명예>라던가 <권위>에서가 아니고 <단순히> 그 환자의 아픔을 덜어 주겠다는 <애정>으로 가신다면 그것은 천주님의 뜻에 맞는 <희생적 행위>가 될 것입니다. 자연계에 나타난 행위도 중요하지만 초자연적인 <의향>은 더욱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크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던 그런 의사였다.

사랑의 의향! 모든 행위가 여기에 기인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그의 깨달음은 모든 분노를 사라지게 했고 기적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그 환자를 보고 오게 했다는 것이다.

「류우끼찌」적 인술이란 예컨대 철저한 사랑의 의향을 내포한 <희생적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의술이 지니는 자선적 의미만으로는 결코 완전을 기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견에 반대를 하는 가톨릭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전혀 <가톨릭적>이 아니라는 것이 「류우끼찌」로 부터 받는 인상인 것이다.

◇ 의학과 윤리

불쌍한 사람을 돈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환자를 의사가 사랑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진적으로 의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물론 이 이론에는 의사도 생활인으로서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경제성을 무시한듯한 인상이 없지는 않지만 적어도 의술(醫術) 그 자체에 관한 이런 이유따위가 깎아내릴 수 없는 높은 윤리성이 있는 것이며 모든 의사는 이 윤리성을 쫓아 <희생적 행위>로서 의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대중의 요구이며 또 그 의술의 당위(當爲)인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방법에 의해 의사가 생활인으로서의 여유를 누릴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전혀 지상(地上)적인 조건으로 의사가 의술의 윤리성을 부정하거나 게을리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따져본 의사의 의무인 것이다.

의술의 윤리성에 관한 문헌은 이제까지 결코 적잖은 수가 발표되어왔다.

이들 대부분이 이렇듯 높은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에는 적어도 인술을 펴는 의사가 결코 신(神)이 아니고 인성(人性)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일상(日常)화 하기 쉬운 의술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 책 가운데 「니콜라스·로겐」의 《醫學과倫理》는 특히 가톨릭 의사로서 이 세상 무엇보다 귀중히 다루어야 할 생명에 대한 윤리감과 이와 아울러 비윤리적인 산아제한(産兒制限)에 대한 가톨릭 의사의 입장을 잘파한 명저중의 백미(白眉)를 이루고 있다.

의사가 세상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는 것은 특권인 것이며 의사는 정적과 자비심에 넘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는 마치 성직자와도 같이 그의 몸을 바쳐서라도 타인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는 높은 사명감으로 인간세계를 지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의사로서의 직업이란 결코 다른 그것과 같이 고립될 수도 없고 그것은 사랑의 행동까지를 제율(制律)하는 더 포괄적 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을 따르자면 결국 의학과 윤리가 각기 요구하는 바는 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일치하게 마련이며 설사 의학이 요구하는바와 윤리가 요구하는바가 일치 하지 않고 서로 충돌 한다면 윤리는 반드시 앞서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방법으로 환자를 구한다』는 것이 의사로서 갖는 적극적인 태도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선·악(善惡)에 대한 판단이 빠르고 의술을 폼에 있어서의 윤리감이라는것은 그리쉽게 생겨나고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윤리보다는 의학이 더 앞서 행해지게 마련이며 막연한 윤리감속에 숨은 고민을 하는것이 윤리감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인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고귀한 인식은 의술에 대한 충실한 추궁, 그리고 사회 및 개인에 대한 여러 의무를 추궁함에 있어 의사가 마땅히 가져

야 할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아주 확고한 기초위에 세워 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세계관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불변의 바탕을 주장하는 오직 하나인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교만이 자연법의 보편타당성을 항상 지녀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적 의학자들 가운데 이 자연법에 따라 그들의 학문세계와 인술에의 노력에 성공한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

19세기 「프랑스」의 「렌넥」(Laennec)이 그렇고 「베일」(Bayle)이나 「까밀·페롱」(Cammille Féron) 그리고 독일의 「카펠만」(Cayelmann)이나 「베르그만」(Bergmann)이 있으며 이렇듯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이 천주의 진리를 갖고 이를 인식함을 자랑삼았던 그리스도교 신자인 의사를 들추자면 한이 없다.

의학이 가지는 윤리성에 있어서 이와같은 사목적(使牧的) 의미는 무엇보다 큰 것이며 여기에 가톨릭 의사가 단연 앞장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 가톨릭 의사의 역할

사제(司祭)의 역할과 의사의 역할 사이에는 일정한 연결이 있다.

의사의 역할에 관하여 그의 저서 《사랑과 자제》 가운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 「수에넵스」(「벵기에」에서 대학 교수로, 또 1962년에는 추기경에 피선된 신학 및 철학박사)에 의하면 교회의 교리와 그 적용 원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제의 일이며 그것을 인간에 대한 봉사에 적용할 과학적인 방법을 논하는 것은 의사의 일인 것이다.

따라서 신자(信者)인 의사(醫師)가 교리를 지킨다는 것은 의사에게 있어서 그의 <신분상의 의무>의 제 1위이며 그밖의 의무는 이 제 1의 무에 충족되고 이와 완전히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의사가 그리스도와 각별히 깊은 관계에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의 여러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내가 세상에 온것은 약강한 사람을 위하지

않고 병든자를 위함이다.』라고 한 그리스도는 실제로 많은 환자를 고쳐준 기적을 수없이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환자에게 베푸는 그리스도의 자비는 오늘날로 의사를 바라보는 환자의 눈빛속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환자는 사제에게 표시한 신뢰와 겸손된 태도는 의사에 대해서도 가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의사와 환자사이의 연결이다. 그리하여 환자는 의사의 배후에 자기를 구하고 고쳐줄 그리스도 자신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다.

의사는 다만 육체만으로서의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전체, 즉 영혼에 의해서 생활하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전 인간을 치료하는 자인 것이며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보다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간의 단 한부분만을 치료하는 것은 결코 인도적(人道的)도 아니고 더구나 가톨릭적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의사는 인간성 자체를, 그 구성요소전부를,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신체적인 병상뿐 아니라 그 심리 상태까지도 그 도덕적 정신적 이상과 그 사회적 지위까지도 다 고려해야 한다』고 「이태리」의 암 전문의사 클럽에서 연설한 비오12세의 말처럼 가톨릭 의사는 <완전한 의술>의 전위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특히 육체의 병이 영혼에 미칠 영향까지도 관찰하는 진지함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가톨릭의사의 역할가운데 오늘날 특히 문란해진 성도덕(性道德)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빼놓을 수가 없다.

이것은 앞서 얘기한 환자 전체를 치료하는 전일적(全一的) 사랑이 아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감이 있는 일이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 생활을 위한 자제력을 키우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도덕에 관한 가톨릭적 교리를 강력하게 사회에 전해야 할일은 가톨릭적인 의사의 어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가톨릭 의사회를 구성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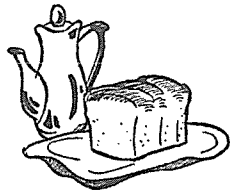
지 않으면 안된다고 「수에벤스」는 주장하고 있다. 가톨릭 의사란 이렇듯 찾아오는 환자만을 사랑으로 치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도덕적 계몽과 교육에 있어서 의사가 모든 근대 기술과 「매스콥」까지를 이용하여 노력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각종 성도덕의 문란에 대하여 사제가 교육하는데 있어서 이들로 인한 육체적 전신적 위해(危害)를 의학적 「테이터」에 의해 의사가 제공해 준다는 것은 무엇보다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인으로서 의사의 역할이란 이렇듯 사제를 통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도우는 훌륭한 일을 맡고 있는셈이 된다

말하자면 가톨릭 의사라는것은 의학이 갖는 진정한 목적 달성에 있어서 너무도 당연하고 적절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며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사였다고 보는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삶을 누리는 특권자인 셈이다.

가톨릭 의사로서 「류우끼찌」적 인술은 <희생>까지를 요구하는 참으로 어려운 노릇이긴 하지만 그러나 보다 <영원한 것>을 위한 자기 희생적 봉사가 생활화되도록 신앙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인류의 밝은 내일을 위한 가톨릭적 참 의사를 구현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詩)



病 棟

신 문 에

(가톨릭의대 간호학과 1년)

I

하이얀 世界
左右 四方을 둘러봐도
눈만 부실 뿐이다.
몸에 젖은 흰 약냄새
흰 視野엔
흰 그리움
흰 고독이 떠 오른다.

II

삶의 目的은?
죽음의 계곡 앞에서
삶에 애착을 느끼며
끈질지게 추적해 본
죽음의 神 앞에서
마녀의 웃음과 함께
조화이룬 괴로운 아우성 소리
삶의 目的은 자꾸 變質 되어 간다
질름발이
병어리로
흰 까운이 검게 죽는다.

III

萬物이 잠든 世界
별만이
고독을 함께 즐긴다
밤새도록 고독을 찾아 헤맨다
별하나
별 둘
고독과 함께
사그러져 가는 별을
세고 있다.

IV

그리움
멀리 지평선 너머
잡힐듯이 멀어져 가는 그리움
웃음을 머금은 소녀의
환희에 찬 손짓
닥아오는 죽음 앞에서도
그리움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롭기만 하다.